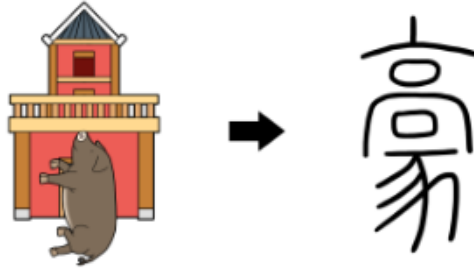


3(2)  
-  
481

회의문자①



豪

호걸 호

豪자는 '호걸'이나 '귀인',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豪자는 高(높을 고)자와 豕(돼지 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高자는 높은 건물을 그린 것으로 '높다'나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크다'라는 뜻을 가진 高자에 豕자가 결합한 豪자는 '뛰어난 멧돼지'나 '우두머리 돼지'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 쓰임에서는 사람에 비유되어 '호걸'이나 '뛰어난 사람'을 뜻하고 있다. 통일 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에 등장했었던 호족(豪族)이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집안을 지칭했던 말이었던 것도 豪자가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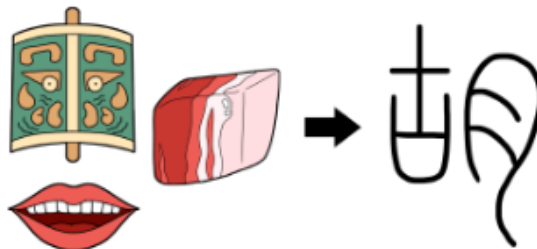
소전

豪

해서

3(2)  
-  
482

회의문자①



胡

되[狄]  
호

胡자는 '오랑캐 이름'이나 '구레나룻', '턱밑 살'과 같은 뜻을 가진 글자이다. 胡자는 古(옛 고)자와 月(육달 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보통 月자가 우측 변에 있으면 '달'과 관련된 글자이지만 胡자는 예외에 해당한다. 胡자는 사람의 턱 밑 살이나 구레나룻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古자는 의미와는 관계없이 살이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胡자는 일찍이 서역에 있는 여러 민족을 일컫는 글자로 쓰였다. 수염을 길게 기른 유목민족들의 특징에 비유되었기 때문이다.

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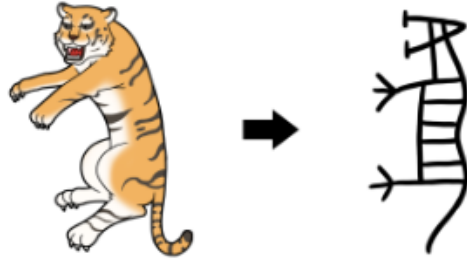
소전

胡

해서

3(2)  
-  
483

상형문자①



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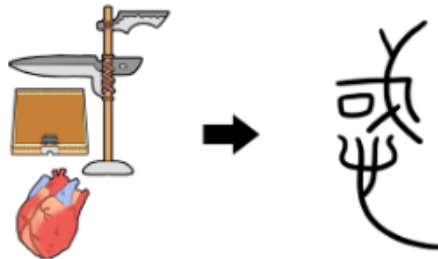
범 호(·)

虎자는 '호랑이'나 '용맹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호랑이는 예나 지금이나 용맹함을 상징한다. 그러나 고대인들에게 호랑이는 두려움의 대상이자 신비의 영물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문자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虎자가 쓰인 글자 대부분은 '용맹함'이나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다. 갑골문에 나온 虎자를 보면 호랑이의 몸집과 얼룩무늬가 그대로 표현되어있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획이 변형되면서 지금의 虎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참고로 虎자는 폰트에 따라 다리 부분이 儿자나 几자가 혼용되기도 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484

회의문자①



惑

미혹할  
혹

惑자는 '미혹하다'나 '의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惑자는 或(혹시 혹)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或자는 창을 들고 성을 지키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혹시'라는 뜻을 갖고 있다. 혹시라도 적이 쳐들어올까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心자가 더해진 惑자는 성을 오가는 사람들을 감시하며 수상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惑자는 그런 의미에서 '의심하다'나 '미혹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금문	소전	해서

3(2)  
-  
485

회의문자㉠



魂

넋 혼

魂자는 '넋'이나 '마음',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魂자는 鬼(귀신 귀)자와 云(구름 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혼'이란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돌아간다는 영혼을 말한다. 땅에 머물게 된다는 백(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魂자는 하늘을 떠도는 영혼을 표현하기 위해 '구름'을 그린 云자와 鬼자가 결합해 만들어졌다. 육체를 떠난 영혼이니 구름처럼 이리저리 떠돈다는 의미인 것이다. 魂자는 사람의 정신력이나 '마음'을 뜻하기도 하는데, 진정한 정신력이란 사람의 영혼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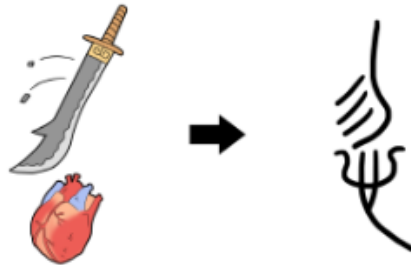
소전

魂

해서

3(2)  
-  
486

회의문자㉠



忽

갑자기  
홀

忽자는 '소홀히 하다'나 '마음에 두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忽자는 勿(말다 물)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勿자는 칼로 무언가를 쪼개면서 파편이 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하지 마라'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뜻을 가진 勿자와 心자가 결합한 忽자는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아무 관심도 없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자칫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서 忽자에는 '소홀히 하다'나 '경시하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忽

금문

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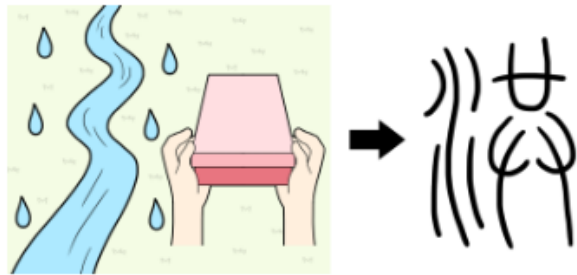
소전

忽

해서

3(2)  
-  
487

회의문자①



洪

넓을 홍

洪자는 '넓다'나 '크다', '홍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洪자는 水(물 수)자와 共(함께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共자는 제기 그릇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함께'나 '같이'라는 뜻이 있다. 홍수란 강물이 하천의 제방을 넘어 주변 지대로 흘러넘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모두가 방재작업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洪자는 모두(共)가 손을 맞대어야 하는 큰물(水)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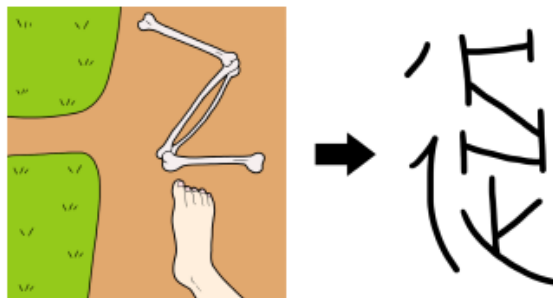
소전

洪

해서

3(2)  
-  
488

형성문자①



禍

재앙 화:

禍자는 '지나다'나 '경과하다', '지나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禍자는 疒(쉬엄쉬엄 갈 착)자와 𠂔(가을 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𠂔자는 '빠'를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禍자는 어떠한 상황이나 상태가 지나갔음을 뜻하기 때문에 길을 걷는 모습을 그린 𠂔자가 '지나가다'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다만 지금의 禍자는 '초과하다'나 '넘치다'와 같이 한계를 넘어선다는 뜻이 확대되어 있다.

禍

금문

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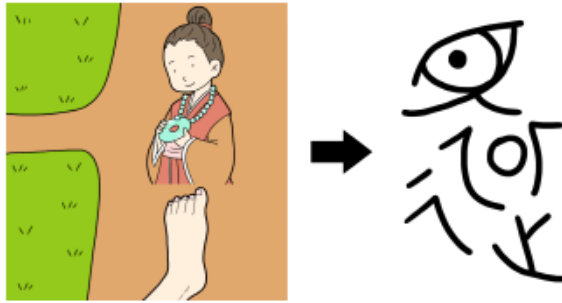
소전

禍

해서

3(2)  
-  
489

회의문자①



還

돌아올  
환

還자는 '돌아오다'나 '돌려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還자는 辶(쉬엄쉬엄 갈 착)자와 還(놀라서 볼 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還자는 목에 걸린 등근 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還자는 이렇게 등근 옥을 그린 還자에 辶자를 결합한 것으로 길을 한 바퀴 돌아서 온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還자에 쓰인 還자는 등근 옥으로 응용된 것이다.

還

금문

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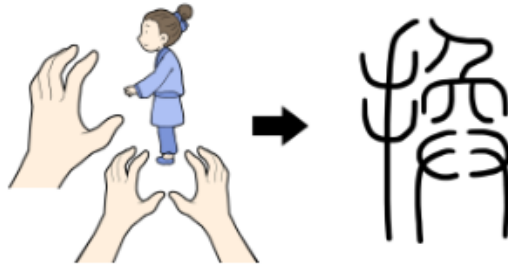
소전

還

해서

3(2)  
-  
490

형성문자①



換

바꿀 환:

換자는 '바꾸다'나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換자는 手(손 수)자와 換(빛날 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換자는 산모의 아이를 받아내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는 하지만 유래가 명확하지는 않다. 게다가 여기에서는 발음요소로만 쓰였다. 換자는 물건을 바꾸거나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것을 뜻하기 위해 手자가 의미요소로 쓰인 글자이다. 그래서 본래의 의미는 '바꾸다'이지만 낡은 것을 없앤다는 의미에서 '새로워지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換

소전

換

해서